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2024년 10월 30일 제 73 호

박용철 강화군수, 소통과 협력 행보 시작

강화경찰서 등 4개 유관기관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가 18일 강화경찰서를 시작으로 유관기관을 차례로 방문하며 소통과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갔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경찰서, 해병대 제5여단,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소방서를 방문, 기관장들에게 취임 인사를 하고, 그동안의 군정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해병대 제5여단 방문에서는 “현재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불안한 상황이다.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최전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감사한다”는 격려도 잊지 않았다.

강화소방서 방문

경찰서 방문

강화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는 “지난 2월 말 강화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성공적인 교육정책을 펼쳐 3년 후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용철 군수는 지난 17일 첫 공식 업무 일정으로 강화여중 앞 등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선택했다. 한편, 박용철 군수는 군민 화합과 소통을 위해 향후 ‘군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강화소방서 방문

5여단 방문

강화교육지원청 방문

군민안전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등 제재 협조

해병대 제2사단장과 현안사항 간담회 개최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해병대 제2사단을 전격 방문해 정종범 사단장과 현안사항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방송 관련 군민들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대남방송 소음 피해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3개월째 별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고, 급기야 피해 군민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등 군민 피해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용철 강화군수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한다”며 군당국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 최벽하 기자

박용철 강화군수 해병대 2사단 방문

INDEX | 1면~8면 • 강화군소식 | 9면 • 강화인천뉴스 | 10~11면 • 역사문화기행 | 12면 • 오피니언 | 13~14면 • 훈훈한세상 | 15면 • 건강참살이 | 16면 • 동네가꿈이(광고)

강화군민의 염원을 담은 신속한 강화발전

박용철 강화군수, 주요 현안보고 공백없는 군정운영 이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

박용철 강화군수가 21일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중단 없는 강화군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부서별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0일까지 이어진다.

박 군수는 첫 업무보고 전 "소통과 통합으로 군민이 살기 좋고,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강화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뛰자"를 당부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사업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누리공원 시설 안정화 추진 ▲강화군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통합관제센터 신축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강화농특산물 생산기반 지원 ▲해양치유산업 추진 ▲온천자원 관리 ▲연도교 건설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군민 편의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민 행복 최우선 과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공약사업을 구체화해 별도 보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군정운영 방향은 오는 12월 본예산 확정 후 군민에게 공개하고 진행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철 군수는 "7만 강화군민의 염원이 담겨 있는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사업별 추진일정에 맞춰 목표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강화발전 건의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신속한 국가 재정사업 전환 등

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강화 풍물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나 군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강화군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 군수는 오후 1시부터 5일장을 맞은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어 오후 3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강화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숙원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 내용은 ▲북한 소음 방송 주민 피해 보상지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국가 재정사업 전환 및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 구간 조기 착공 등이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강화군을 포함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군수는 "이런 굵직한 숙원사업들은 강화군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중앙부처, 국회, 인천시 등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중앙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철군수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에 현안사업 건의

박용철군수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에 현안사업 건의

박용철 강화군수, 첫 직원조회·확대간부회의 개최

현장중심·공정한 일 처리 당부

박용철 강화군수는 21일 군청4층 진달래홀에서 첫 직원조회를 개최하고 이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다.

전 직원이 참석한 직원조회에서 박용철 군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신 윤도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공정한 일 처리와 '군민소통! 군민통합!'을 위해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층 영상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과장 등 간부공무원 외에 실무 역할을 담당하는 각 과의 주무팀장도 배석토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실무 중심'을 강조하는 신임 군수의 차별화된 군정방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실무진들이 정확한 군정방향을 이해해야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고, 빠르게 군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먼저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또한, 제1호 지시사항으로 '군민통합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했고, 접경지역 대남방송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청소년·어린이 지원 시설 확대 등 당장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도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읍면장의 재량권 보장, 인사청탁 불용인 등 군청 쇄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표명했다.

10월 중 직원조회

확대간부회의

강화군, 가축전염병 선제적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대폭강화

상시거점소독시설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구제역(FMD)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전염병 발생을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군은 자동화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드론을 활용한 방역약품 살포 등 다양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 단위 집중 소독 지원을 통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말 경기 김포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강원도 양구와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럼피스킨(LSD)으로 양돈 및 소 사육 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차량의 방역에 이상이 없도록 거점 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있으며, 양돈농가 11개소와 가금사육농가 30개소의 방역시설과 럼피스킨(LSD) 발생 차단을 위한 백신접종 누락개체 농가를 점검하고 있다.

군은 구제역 미접종 개체에 대하여 철저한 이력제 모니터링 진행을 통해 허약 개체와 임신우를 제외한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럼피스킨(LSD)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력제 모니터링을 통해 출산한 암소와 3~4개월령의 개체에 대한 공수의 접종 지원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한편, 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제류인 소와 염소 20,421두 중 16,312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 80%의 접종률을 달성했으며, 9~10월에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던 럼피스킨(LSD)도 지난 4월 구제역 백신 접종과 동시 접종을 시행해 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박용철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 내외부 및 출입 차량 소독, 철새 도래지 출입 차단 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수적이다"라며, "축산농가와 군이 서로 협력해 가축전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드론방역 사진

강화군의회,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머리 맞대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간담회 및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강화군의회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 간담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강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대표 의원 최중찬)'가 지난 28일 군의회 2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연구회 간담회 및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강화갯벌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 해법 및 개발 방향성 등에 토론을 위해 연구회 소속 의원(한승희, 박승한, 최중찬, 고복숙 의원)과 군청 관계 공무원, 안양대학교 강준수 교수, 이지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승희 부의장(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은 "강화의 갯벌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고 군민 소득제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소관부서와 협력하며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중찬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회 최종 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시해 갯벌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등재, 인구 소멸 대응, 자연보호 등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정책을 집행부와 함께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갯벌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강화갯벌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를 추가로 모색한 후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화군, 제3회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21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3회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도 남은 하반기 행사인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등 준비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읍·면별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철 군수가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13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달용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읍·면 위원장들의 협조로 주민자치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발전의 핵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강화군 발전을 함께 뛰자"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 유승수 주무관, 인천강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강화군의회가 지난 21일, 의회사무과 유승수 주무관이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강화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승수 주무관은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및 지방의회도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경찰 업무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

유 주무관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경찰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 유승수 주무관, 인천강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2024년 강화 화개정원 축제」 성료

1만 5천명 방문,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 마무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된 '2024년 강화 화개정원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개정원 축제는 '오색찬란 오감만족'을 주제로 포토존 조성, 소규모 버스킹, 프리마켓, 인기가수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추억을 선사했다.

특히 5색 테마정원 곳곳에 마련된 페이스페인팅, 전통 3종 경기, 플라워 칵테일 만들기, 반려 화분 심기, 키링 만들기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원 특화 참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저어새를 본떠 만든 화개산 전망대에서는 마술쇼, 버스킹을 진행하고 치유의 정원 멍 때리기 존에서는 빈백에 앉아 북한 연백평야를 바라보며 휴식과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화개정원에서의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길 바란다"며, "오는 11월 2일 강화 원도심에서 개최되는 와글와글 활성화 행사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축제 이틀간 총 1만 5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화개정원축제

화개정원축제

화개정원축제

2024년 제6회 강화 10월애(愛) 콘서트 성황리 개최

5,000여 강화군민 화합의 장 마련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9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4년 제6회 강화 10월애(愛) 콘서트'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10월애(愛) 콘서트에는 관객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가 강화군민들을 만나는 첫 행사로, 콘서트를 찾은 강화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는 박정현을 비롯해 다이나믹듀오, 김수찬, 최진희, 오유진, 유주 등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이 무대를 펼쳤으며, 공연의 피날레로 아름다운 강화의 밤하늘을 수놓은 환상의 불꽃놀이가 진행되어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2022년과 2023년 10월애 콘서트에서 소개됐던 사연의 주인공 4팀을 선정해 현재의 근황과 추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관객들과 추억과 웃음을 함께 공유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쌀쌀한 날씨에도 콘서트를 찾아준 관객분들께 감사드리며, 10월愛(애) 콘서트가 군민 여러분의 지친 일상 속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10월 愛 콘서트

강화군립합창단, 전국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

전국단위의 합창 경연대회

강화군립합창단 대상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19일(토)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강화군립합창단이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화군립합창단은 코로나19 이후 첫 참가했지만 정재환 지휘자의 지휘 아래 멤버들 간의 완벽한 조화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았다.

강화군립합창단은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속적인 공연을 펼치며 합창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군민께 전달할 계획이며, 주민과 소통하며 합창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 합창단이 전국 최고 수준의 합창단임이 증명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수준 높은 합창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역사박물관, '시간을 잇는 유산' 기증유물 기획전시

2025. 6. 29.까지 '청도 김씨 교동파 기증유물전'

청도 김씨 교동파 기증유물전『시간을 잇는 유산』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내년 6월 29일까지 강화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시간을 잇는 유산, 청도 김씨 교동파 기증 유물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 전시는 지역 유물 기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조선시대 강화에 터를 두었던 한 가문의 역사와 지역의 변화상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했다.

2020년 청도 김씨 교동파 27세(世) 김성철씨가 기증한 집안의 유물 111점 중에 일부를 선별하여 소개하며, 전시는 청도 김씨 11세손인 김현이라는 인물이 교동도에 들어온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총 3부로 구성했다.

전시 내용은 1부 〈교동과 연을 맺다-청도 김씨의 교동 입도 入島〉에서는 16세기 청도 김씨 교동파 가문이 교동에 들어온 계기를 보여준다.

2부에서는 〈교동에서 대대로 살아가다-청도 김씨의 세거 世居〉에서는 후손들이 교동과 강화본도 일대에서 살아가는 생활상과 송가도 간척 등 당시 교동도의 변화상을 소개한다.

3부는 〈석모도로 이주하다-청도 김씨의 근대 문물 수용〉을 주제로 감리교를 수용하고, 약방을 운영하는 이야기를 통해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주요 유물로는 12세 병산 김난상의 유고(遺稿)를 모은 '병산선생문집' 필사본이 있다.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의 목판으로 찍어낸 책만이 확인되다가 기증 과정에서 붓으로 종이에 쓴 필사본이 포함됐다.

또한, 퇴계 이황이 사망하던 해에 작성된 김봉상 묘갈명 탁본과 준호구·호패·교지·토지 매매 문서를 비롯해 기독교 수용과정 및 약방 운영을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민의 유물 기증이 단순한 기증을 넘어 강화군민들에게는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강화군의 역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유물 기증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화군,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 개선 기대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9일 강화문예회관 및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다중집합시설의 화재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된 이번 훈련은 다수의 공연과 행사가 개최되는 강화문예회관에서의 화재 발생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실시했다.

공연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관람객 대피 시 넘어지고 깔리는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된 이날 훈련은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토론 훈련 ▲강화소방서 긴급 구조통제단 및 강화보건소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강화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훈련 시 각 유관기관 간의 상황전파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단말기)을 적극 활용 등으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훈련에는 강화군을 비롯해 강화소방서, 강화경찰서, 군부대 등 13개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굴절차, 펌프 차, 구급차, 굴삭기 등 36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특히 2023년에 이어 어린이집 원아 20명이 요구조자로 함께 훈련에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눈길을 끌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최근 전국에 연이은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해 화재에 대한 안전 예방 및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강화문예회관에서의 화재 대응 훈련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개선하고 군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최벽하 기자

안전한국훈련

안전한국훈련

강화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체육행사도 개최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3일 강화문예회관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회장 장기천)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인천 군·구 지회장을 비롯해 관내 유관 기관단체장, 노인회 관계자, 노인복지에 기여한 표창 수상자 및 관내 어르신 3,000여 명이 참석해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치러졌다.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난타, 어버이합창단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노인강령 낭독, 표창 수여가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한궁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체육대회에 35개 팀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 풍물, 색소폰, 드럼, 통기타 등 시니어 동아리 공연이 진행되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열린 이번 체육행사는 각 읍·면 분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가 됐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당선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께 큰절을 올리고, "강화의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버스, 무료 택시 및 경로당 인력 지원을 통한 식사 제공 확대 등 실제 어르신들에게 와닿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노인의날 기념행사

『2024년 강화 미술단체전』 성황리 마무리

지역 예술의 꽃을 피운 전시회, 군민들의 호응 속에 성료

지난 1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열린 「2024년 강화 미술단체전」이 군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군 지원 미술단체들의 작품 전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강화 지역 문화 예술의 저력을 한층 더 빛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사)한국미술협회 강화지부, 강묵회, 강화문화예술포럼, 강화여류작가회 등 4개 단체에서 출품한 약 75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예술적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강화 지역의 예술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미술단체전은 강화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술 지원을 통해 강화군이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강화군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벽하 기자

미술단체 전시회

《철종의 눈물을 씻다》 재판 출간

본지에 역사문화기행을 연재하고 있는 이경수 작가의 《철종의 눈물을 씻다》 재판이 출간됐다.

'강화도령 이원범의 삶과 그의 시대사'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철종 이원범에 덧씌워진 왜곡과 오류를 벗겨내고, 그의 참모습에 다가가려는 작업의 결과물이다.

이원범이 왜 강화로 귀양 왔는지, 정말 나무꾼·농사꾼으로 살았는지, 그의 첫사랑이 누구인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소상히 밝힌다.

철종이 정치를 내팽개치고 주색에 빠져 지내다가 단명했다는 통설을 반박한다. 저자는 철종이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백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했던 군주임을 말한다.

아울러 당시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묘호'라던가 '즉위년과 원년의 차이' 등 독자들이 궁금해할 주제들을 뽑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복지 사각 ZERO! 행복한 강화’

강화군, ‘제1회 사회복지박람회’ 성황리 성료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체험 등 복지 어울림의 장 마련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26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강화군 사회복지박람회’를 성황리에 성료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군민들이 화합하는 복지 어울림의 장’으로 강화군이 주최하고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사회보장 유관기관과 군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의 장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의 32개 사회복지시설·단체, 사회보장 유관기관이 부스를 운영하며 각종 생활 밀접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행사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회복지시설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복지 사각 없는(복지사각 ZERO!) 행복한 강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강화 아버지합창단, 태권도 시범공연, 강화여중의 치어리딩 등 다양한 릴레이 공연이 펼쳐졌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오늘 제1회 강화군 사회복지박람회가 개최되는 이 자리를 빌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해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하여 군민 모두가 소통하고 통합되는 강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술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되어 기쁘고 사회복지박람회가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박람회

사회복지박람회

강화군,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강화고-강화여고 ‘맞손’

자율형 공립고 공모를 위한 협약식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23일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강화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적 · 물적 자원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지역 인재로서 성장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역 혁신형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규모는 총 20교 내외로, 선정 시 2025년 3월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되며, 교육부로부터 매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가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 · 교육청의 예산 지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등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은 자공고 2.0 선정 시 교육발전특구 및 운영 중인 교육사업과 연계해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학생들의 손에 달려 있기에 이번 협약의 의미가 적지 않다”며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등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강화군 장학관 4개소 운영,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 교육경비 지원, 학교 체육 육성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벽하 기자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유공자에 표창 수여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헌신한 관계자들 포상 및 격려 시간 가져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사진제공 – 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9일 인천시청 장미홀에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유공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9월에 개최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해군전승행사추진단, 17사단, 해병대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서는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유공자들과 함께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함께, 기념주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의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더 발전된 행사 준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올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2025년에는 더 큰 국제행사로 격상하여 추진할 예정이지만, 올해와 같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있으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더욱 발전된 기념행사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거듭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2025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국제행사로 격상하여, 인천의 역사적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인천시 성탄 트리 점등식, 전국서 가장 먼저 시민과 함께

참여 시민 500명에 케이크 선물 …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 선사

인천시, 전국서 가장 먼저 성탄 트리 점등식

올해는 인천에서 가장 먼저 성탄 트리의 불이 켜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2주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인천시가 후원하고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올해 점등 행사는 시민과 함께한다. 또한 예년의 대형 트리 대신 70여 개의 성탄 트리로 '성탄숲'을 조성해 풍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즐거움을 더할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계산교회 지저스 율동단의 활기찬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해양경찰관현악단의 금관 5중주, 서울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과 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성탄의 감동을 더하는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추억의 겨울 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으며 점등식에 참석하는 시민 500명(선착순)에게는 케이크를 증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백민숙 시 문화정책과장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인천에서, 성탄 트리 점등 행사를 통해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시민이 평화와 화합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역사기고

철종 이원범은 어떤 임금일까

이경수

철종왕릉 예릉 정자각(경기 고양)

농사꾼 출신 임금님?

철종의 아버지 이광은 강화에서 위리안치 상태였습니다.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감금 생활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원범은 비교적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강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백성들 삶을 알게 됩니다.

즉위하면서 이시원을 개성유수로 삼습니다. 강화에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이시원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듣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시원은 철종 조정에서 요직을 맡으며 활동하게 됩니다.

유배 시절 원범은 나무꾼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농사꾼도 아니고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갇혀 지내던 아버지 이광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먹을거리와 땔감을 공급받았으니까요.

이원범 가족은 생활비로 매달 50냥을 받았습니다. 상평통보를 보통 엽전이라고 하죠. 엽전 한 개가 1푼이고, 엽전 열 개는 1전, 엽전 100개가 1냥입니다. 1냥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푼만 줍쇼."는 용납되지만, "한 냥만 줍쇼." 했다가는 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50냥이면 당시 시세로, 적게 잡아도, 쌀 10가마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원범 일행이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관비(官婢)가 드나들며 물을 긷고 땔감도 가져다주었습니다. 원범이 농사짓고 나무해다가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던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50냥은 누가 준 걸까요? 내수사(內需司)입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청이에요. 사실상 임금 헌종이 원범네에게 달마다 50냥씩 지급해 준 셈입니다.

내수사가 당연히 한양에 있습니다만, 일종의 지사가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강화에도 있었습니다. 강화에 산재한 내수사 소속 농토를 운영하고 관리했습니다.

원범이 농사꾼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짐작해본다면, 원범이 가끔 내수사 소속 논에 나가서 둘러보고 모도 내보고 추수도 해보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게 전해지면서 농사꾼으로 와전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철종이 글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꽤 퍼졌습니다. 한양에 살 때, 아버지 이광이 일부러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해집니다. 공부 많이 하면 그게 외려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 일종의 처세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은 이원범을 가르쳤습니다.

원범은 강화로 귀양 오기 전에 이미 이런저런 책을 읽고 기초적인 학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물론 임금으로서 정사를 제대로 펼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지요. 하지만, 즉위하고 수년간, 정말 독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범이 즉위하게 된 이유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즉위합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순조가 임금이 됐습니다. 순조 아들이 효명세자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왕위는 순조의 손자, 즉 효명세자의 아들인 헌종이 이어받습니다. 헌종이 승하했습니다. 계승할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범이 즉위하게 됩니다. 영조-사도세자-은언군(이인)-이광-이원범, 이렇게 이어지는 왕계입니다.

철종을 소개하는 글을 시사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일부를 여기에 옮깁니다.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당시 대왕대비인 순원왕후와 외척이 어수룩한 이원범을 순원왕후의 양자로 들여 왕위에 올리지요. 훌륭한 왕 후보들을 물리치고 말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쇼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어리석고 준비되지 않은 이원범을 굳이 왕으로 삼았을까요. 순원왕후 뒤에는 순조-헌종 2대에 걸쳐 왕비를 낸 세도가 안동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순조의 비이자 안동 김씨 출신으로, 가문의 권세를 유지하고자 영특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배제한 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이원범을 왕으로 삼은 것이지요." 〈주간동아〉 (2017.03.17.)

통설을 잘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철종이 왕위를 잇게 된 이유를 대개 이렇게 설명들 합니다. 하지만, 적잖이 오류가 있습니다.

헌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훌륭한 왕 후보들'이 있던 게 아닙니다. 안동김씨 권세를 유지하려고 '영특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배제한 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이원범을 왕으로 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조의 혈통을 직접 이은 계승 후보자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원범 집안에 3명이 있었어요. 원범의 큰형 이원경은 이미 사망했으나 작은형 이경응이 살아 있었고 또 사촌 형 이희도 있었습니다. 이경응, 이희, 이원범 중에서 순원왕후가 이원범을 선택했습니다.

이원범이 제일 어수룩하고 무식해서 허수아비 왕으로 적당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원범이 선택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이일 겁니다. 당시 이원범은 19세, 이경응은 22세, 이희는 26세였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결정했습니다. 개인 욕심 또는 안동김문의 욕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누가 대왕대비였어도 수렴청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궁궐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이가 왕이 될 겁니다. 궁궐 언어가 백성들이 쓰는 일상어와 꽤 다릅니다. 그런 것부터 익혀야 합니다. 즉위하고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 임금이 궁궐 생활에, 왕의 자리에 적응할 때까지 일정 기간 그 역할을 대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렴청정(垂簾聽政)은 임금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을 때 왕실 어른이 왕 역할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원범 나이 열아홉이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어쨌든 수렴청정이 가능한 나이이기는 했습니다. 반면 스물이 훌쩍 넘은 이경응이나 이희는 관례상, 수렴청정이 무리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왕대비 순원왕후가 원범을 다음 왕으로 지목할 때까지도 원범의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위하고 나서야 학문이 변변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순원왕후가 내심 좋아했을까요?

순원왕후가 가까운 친척에게 보낸 내밀한 편지에 자기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원왕후의 한글편지》에서 옮깁니다.

만고풍상을 겪어 거의 촌동(村童)이나 다름없는 상감인지라 학문이 없다, 죄지은 집안의 자손으로 귀양 가 살다 보니 그리된 걸 어쩌랴, 임금이 학문이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인데 그렇지가 못하니 내 속만 끓이다가 탈진하였다.

원범이 학문을 갖추지 못한걸, 옳다구나, 좋아한 게 아닙니다. 학문 없는 게 너무도 걱정스러워서 속 끓이다가 탈진까지 했다는 대왕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범이 무식해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제일 만만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할 애를 하나 고르자. 이래가지고 고른 게 강화도령이야."

철종에 대한 철저한 무시와 냉소가 밴 말입니다. 끼리끼리 모여 앉아 이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 저명한 출연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할 애를 하나 고르자" 비아냥했습니다. 강화읍내 어느 식당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아쉽습니다. 출연자는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비록 일반적인 철종 인식이라고 해도 너무 경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종은 허수아비 왕이었나

철종이 임금으로서 무능했다는 평가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철종실록》을 읽어봐도 업적이라고 할만한 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안동김문에 맞설, 자기 사람을 키우려고 무던히도 애썼습니다만, 왕권을 바로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철종 어진[출처 국립고궁철종왕릉 예릉 장명등박물관]

그래도 저는 철종을 꽤 괜찮은 군주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군주에게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백성 삶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심초사했습니다. 가을비가 많이 내리면, 다 익은 벼가 쓰러지지나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임금 중에 벼가 쓰러지는 게 뭔 말인지 모르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정(전정·군정·환곡)은 국가의 대정(大政)인데, 지금 삼정이 모두 병들어서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해졌다. 그중에서도 적정(환곡)은 가장 백성의 뼈에 사무치는 폐단이 되었다.…심지어 나누어 주지도 않은 곡식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니, 슬프다."

철종이 한 말입니다. 타락한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화 유배 생활 동안 백성 삶을 직접 살펴서 현실을 파악하고 있던 것입니다.

"방백과 수령 가운데 탐오함이 가장 극심한 자는 침실의 벽에다 써놓았다는 것을 이미 하교한 바 있다." 그렇습니다. 백성들 쥐어짜는 못돼먹은 지방관 명단을 방에 써 붙이고 지낸 철종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개선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생이 곤궁해도 구제할 수 없고 법령이 막혀도 쇄신할 수 없고 재물과 곡식이 다 없어져도 절약하지 못하고 탐묵(貪墨, 탐욕스러운 짓)이 횡행해도 징계하여 다스리지 못하니, 첫째도 과매(寡昧, 덕이 부족하고 우매함)한 나의 죄요, 둘째도 과매한 나의 죄이다."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마음이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자신의 이익에만 가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자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민생을 걱정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정치인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철종은 안동김씨 세력의 꼭두각시도, 허수아비도 아니었습니다. 한계는 있었지만, 그들과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며 개혁을 꿈꾸고,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맞서야 할 때는 맞섰습니다.

즉위 초, 안동김문의 경쟁자였던 풍양조씨 조병현을 처벌하라는 조정의 요구가 강력했습니다. 임금 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철종, 수렴청정 중인 대왕대비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미룰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단박에 거부했습니다.

대사헌이 나서고 대사간이 나서고,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가 합계하여 또 요구하고, 대신들까지 한목소리로 조병헌을 처벌하시오! 외쳤으나 철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철종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물러가라!" 19살, 완전 생초보 임금, 강화도령 이원범이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조선 제25대 임금 철종(哲宗, 1831~1863, 재위:1849~1863)은 훌륭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동김문이 시키는 대로 그저, "예예" 따른 허수아비도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죄다 안동김문에 맡기고, 백성 삶에 무관심한 채 술이나 퍼마시고, 여인이나 품던 한심한 군주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배고픔을 덜어주려고 꽤나 애썼던 임금입니다. 뜻대로 이루지 못해, 백성에게 늘 미안해했던 임금입니다. 철종에 대한 뿌리 깊은 그리고 광범위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철종 어진[출처 국립고궁박물관]

기고

더 이상 '그 밥에 그 나물'이란 소리가 나와선 안된다

이 두
언론인
(전 조선일보 인천취재본부장)

"강화군민들에게 '우리 동네 박 군수'소리를 듣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신임 강화군수의 취임 일성이다. 이어 "소통과 통합으로 강화군을 하나로 묶어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라고도 했다.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는 3만6580표 중 1만8576표(50.97%)를 얻어 강화군수에 당선됐다. 당선 축하를 받는 박 군수의 얼굴에는 승자의 웃음과 자신감, 여유로 가득했다. 그는 취임 첫날 공무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보무도 당당하게 강화군청으로 들어섰다. 강화읍 견자산 현충탑 참배와 강화군청 간부진 상견례를 마친 뒤 기자실에 들러,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강화군이 나아가얄 할 방향을 이야기했다.

박 군수는 "젊을 적부터 군청에 들어가 업무를 보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느꼈다"면서 "어떤 정책이건 군청 공무원,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들고 그걸 함께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청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신부터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우리 동네 박 군수'라는 친근함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박 군수는 가장 먼저 '강화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꼽았다. 강화군은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지역 색깔이 짙어 폐쇄적이기도 하고, 선거 때마다 진영 간 갈등이 심했다면서 그걸 깨는 게 군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이웃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농악대와 함께 놀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하면서 얽힌 걸 풀어내고 했다. 우리 강화 군정도 예전처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민 간 화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화군은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심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원했다. 무엇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무려 4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3번째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가 1만5351표(42.12%)를 획득했다. 이는 보수의 텃밭이라는 강화에서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라는 민심의 표출이기도 하다. 그 동안의 강화선거를 보면 보수 진영이 60% 정도, 진보 진영이 30%대 선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1만382표(26.61%)를,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1만3438표(35.35%)를 얻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8%에 불과했다. 그동안 보수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민심이 변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록 군민들은 관성대로 보수진영 후보를 선택했지만.

선거 전 강화도 민심은 '그 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에 그밥'이라는 체념적인 분위기가 적지않았다. 어떤 후보가 강화군수가 된다 한들 강화군이 크게 바뀔리 없다는 주민들의 가슴앓이였다.

취임 이후 박군수는 일단 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군민들과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 당선 축하를 하기 위해 얼마전 강화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강화군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건의 내용은 ▲북한 소음 방송 주민 피해 보상지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국가 재정사업 전환 및 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 구간 조기 착공 등이다. 한동훈 대표는 "강화군을 포함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런 굵직한 숙원사업들은 강화군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중앙부처, 국회, 인천시 등의 도움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중앙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강화도 출신으로 강화군의원과 인천시의원을 지낸 박군수는 강화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취임하자마자 주민과 소통, 통합을 외쳤다.

과연 박군수가 주민간에 반목과 질시를 끝내고 새로운 강화를 만들지 자못 기대가 크다. 보궐선거로 그의 재임 기간은 비록 1년반 남짓하지만 이 기간에 그의 역량과 군정 방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특히 중요한 건 무엇보다 더 이상 주민들의 입에서 '그나물에 그밥' 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무조건 능력이나 깜이 안되는 데도 선거판에 도와줬다고 해서 주변을 그들만으로 감쌀 경우 강화군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듯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듯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듯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강화군 새마을회, '사랑의 떡 나눔' 행사 진행

새마을지회 이웃사랑 떡 나누기행사

새마을지회 이웃사랑 떡 나누기행사

강화군새마을회(회장 조인술)는 28일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을 위한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각 읍·면 새마을 남·여 회장들이 참여해 송편을 빚었으며, 정성껏 만든 송편을 홀몸어르신과 저소득층에 직접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조인술 강화군새마을회장은 "이번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강화군 새마을회는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봉사해 주시는 새마을회 회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드린다."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새마을회는 매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연탄 나눔, 고추장 담그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고추장'나눔 행사 열어

우리농산물로 고추장 만들어 소외이웃들에 전달

강화군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

강화군 농가주부모임 사랑의 고추장 나눔행사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30일 여성농업인단체인 농가주부모임(회장 김미경)이 '사랑의 고추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이번 행사는 농가주부모임 강화군연합회에서 개최한 이웃사랑 실천 행사로 이른 아침부터 회원들이 모여 고추장 1,000개(1.5kg)를 만들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전달했다.

이날 박용철 강화군수는 행사장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군민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며 하나 되는 강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고추장 나눔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화군 농가주부모임은 2020년부터 매년 '고추장 나눔 행사'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단체의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마니산 '장엄사' 백미 1,000kg 기부

이웃에 자비 나눔 실천

마니산 장엄사, 백미 1,000kg 전달식 가져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6일 장엄사 주지 혜선스님이 백미(10kg) 100포를 강화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용철 강화군수, 한승희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인천교구 종무원장 능해스님 등 관계자와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사 잔디마당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주지 혜선스님은 낙화축제를 봉행하면서 "백미공양은 작은 정성이지만 부처님의 자비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인연공덕을 짓는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지역봉사와 자비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하시는 장엄사 주지 혜선스님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을 자주 만나 소통하며 행복한 강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다문화 주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만들기' 진행

함께 송편을 빚으면 따뜻한 위로와 정 나눠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다문화 주부와 함께하는 사랑의 송편만들기' 진행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회장 임인관)는 22일 '다문화 주부와 함께 사랑의 추석 송편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주부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송편을 빚으며 따뜻한 위로와 정을 나누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했다.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다문화 가족 및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주부들은 한국 문화체험을 통해 다른 이웃과 함께 직접 송편을 만들어보며,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어 기쁘다며 웃음을 지었다.

임인관 바르게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장은 "이번 체험을 통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한국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강화군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민들의 귀감이 되어 솔선수범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풍물시장 안전 캠페인 실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연계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2일 제339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오일장이 열린 강화 풍물시장에서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강화군 안전총괄과와 경제교통과 직원 이외에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단체들이 협력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장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많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앞으로도 자율방재단 등 지역 안전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안전 문화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 며, "최근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평소 가스 밸브 및 전열기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캠페인

강화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전체 환자 76.2% 가을철(9~11월)에 발생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가을철 농작업과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대부분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물린 후 10일 이내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이 있다.

특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매우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진드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 갖춰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밝은색 긴 소매 옷과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반려동물과 산책을 할 경우, 산책 전에 기피제를 사용하고, 산책 시에는 수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38~40℃의 고열이 3~10일간 지속되고 피로감,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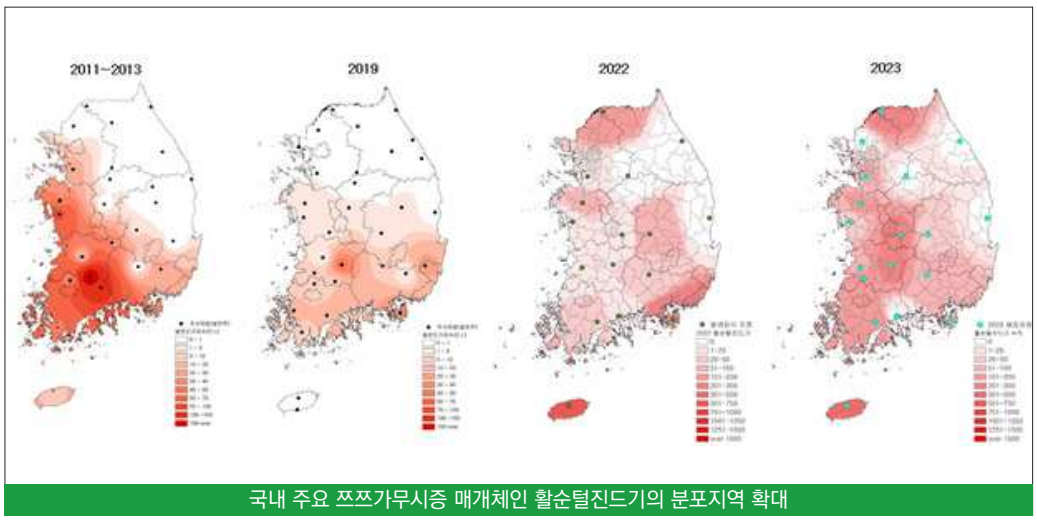
군 관계자는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10월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고령자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Q&A

Q. 쯔쯔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 여름철에 산란된 털진드기알은 초가을에 부화하고,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숙주에 접근하므로 사람이 물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환자 발생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사진 및 카드 출처 – 질병관리청



국내 주요 쯔쯔가무시증 매개체인 활순털진드기의 분포지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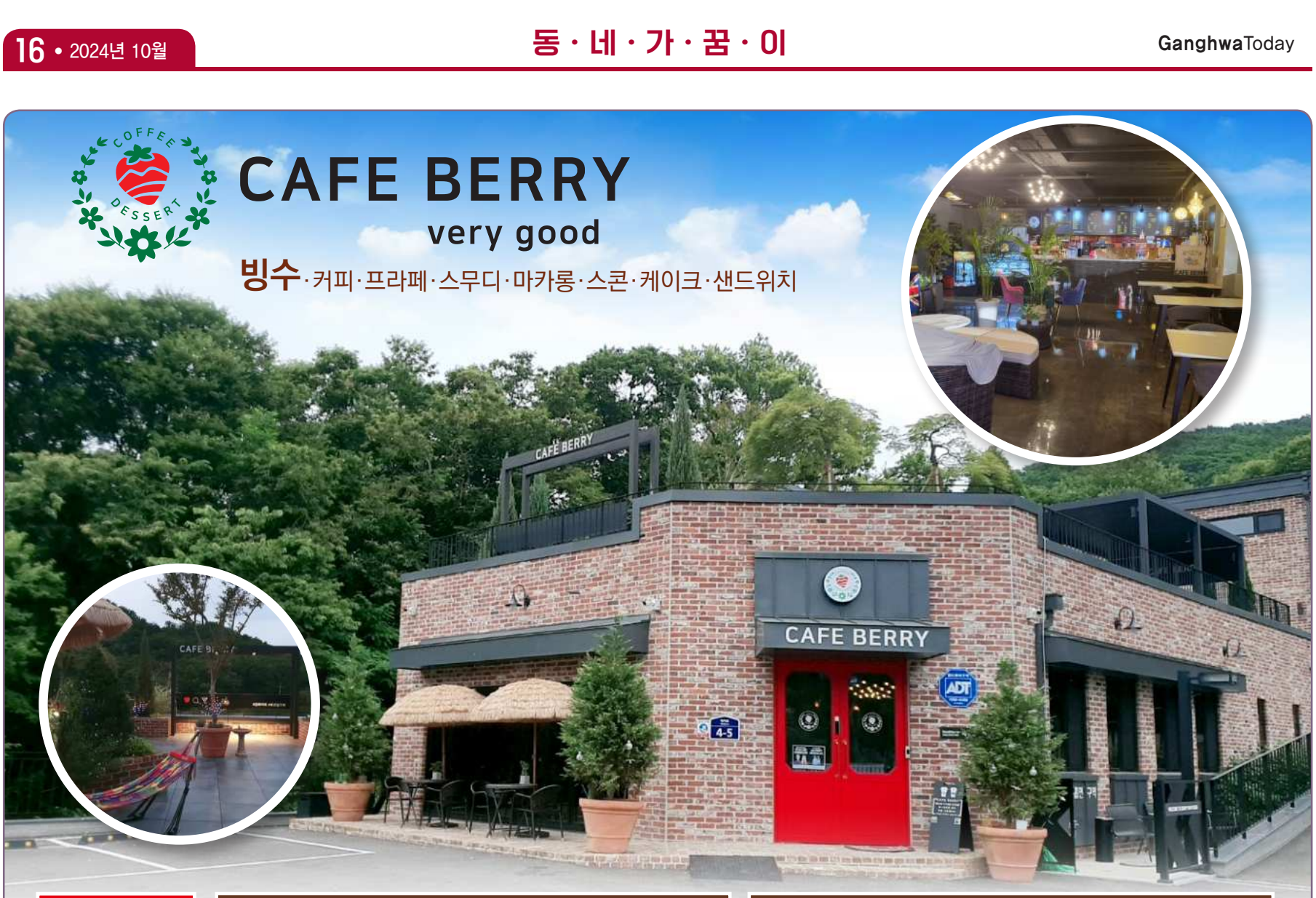
털진드기 유충 전자현미경 사진

털진드기 유충

CAFE BERRY

very good

빙수·커피·프라페·스무디·마카롱·스콘·케이크·샌드위치



카페 베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로 4-5 Tel.010.4781.0518

영업시간 11:00~19:00 화·수요일 휴무 #강화카페 #루프탑카페

today ganghwa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투데이 5천부 제작비 중 원고료(2인), DM제작 우편발송료(1천부), 일반배송비(1천부)만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되며, 인쇄비를 포함한 모든 부가비용은 자체제작입니다.